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94. Vol. 13. No. 1, 153-166

청개구리 심보: 심리적 반발심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홍성묵 김선주 이만영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척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로 번역한 심리적 반발심 척도가 심리적 반발심이라는 성격 구성개념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라는 것을 제안한다. 전체 표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명백한 4-요인 구조가 산출되었고 전체변량 중 4-요인 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 변량의 양 및 신뢰도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분할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고, 아울러 심리적 반발심과 다른 성격구성개념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호주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차이점은 호주에 비해 남녀 간의 성역할 차이가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 또한 심리적 반발심 특성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연구목적을 위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자신의 운명에 대한 주인으로서 운명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며, 표현방식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보호하려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Brehm (1966)은 이와 같은 성향을 '심리적 반발심 (Psychological Reactanc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하나의 성격 구성개념(personality construct)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그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 자유를 잃어 버리거나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자유를 회복하려는 동기상태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가 '심리적 반발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심리적 반발심이 일어나는 정도는 특히 4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믿음, 자유의 중요성, 자유에 대한 위협의 강도, 그리고 미래에도 위협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등이 심리적 반발심의 강도를 결정한다. 즉 개인이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자유와 통제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심리적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위협받은 자유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반발심은 더 크게 일어난다. 아울러 위협의 강도가 클수록, 그리고 현재의 위협이 미래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반발심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

이다. 심리적 반발심이 일어날 때, 그것은 직접적인 행동, 정서, 및 태도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아니면 학습된 무기력처럼 자포자기 상태를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받은 자유에 대한 큰 갈망을 불러 일으켜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처음에는, 반발심이 일어나는 현상을 상황-특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Brehm과 Brehm (1981) 및 다른 학자들은 (Dowd, Milne, & Wise, 1991; Jahn & Lichstein, 1980; Rohrbaugh, Tennen, Press, & White, 1981) 이 현상을 특성 (trait), 즉 개인차 변인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반발심을 성격특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Brehm과 Brehm (1981)이 제안했듯이, 이 이론은 인간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가치를 가지며 심리학의 어느 분야에든지 적용될 수 있다. 간단히 몇가지 예를 든다면, 반복되는 광고나 정치적 선전 등에서 설득 및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심리적 반발심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사회적 영향, 개인적 공간에 대한 침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호의 등에 저항하거나 혹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영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직장에서의 노사관계와 상하급자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사제관계,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또는 가정교육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적용범위가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을 위한 반발심 척도가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1983년 Merz가 개발한 독일어 척도와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 (Hong & Page, 1989)가 그 전부이다.

이 이론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특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자기보고 척도 (self report scale)를 개발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다. Merz (1983)는 독일어로 된 18-문항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높은 신뢰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확인된 4-요인 구조를 위한 항목 혹은 명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성개념의 성질에 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였다.

Tucker 와 Byers (1987)는 Merz의 독일어 척도를 영어로 변역한 다음, 미국 대학생 표집을 통해 그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호주인 표집을 사용한 또다른 연구에서, Hong 과 Ostini (1989)는 Merz의 영어판 척도 (Tucker & Byers, 1987)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에서 산출된 요인구조에 큰 차이가 있었다. Tucker 와 Byers는 총 변량의 21 % 만을 설명하는 2-요인 구조 (행동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 를 발견하였다. 반면에 Hong과 Ostini (1989)는, Merz (1983)의 연구에서처럼, 4개의 요인을 산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결정과 행동의 자유 (Freedom in Decision and Behavior), 행동적 반발심 (Behavioral Reactance),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한 회의 (Scepticism Toward's Others Advice), 동조 반발심 (Conformity Reactance). 이 4-요인구조는 Merz의 독일 척도와 유사하게, 총 변량의 44.1 %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연구 둘다에서 이 척도가 심리측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 이 척도가 이용될 수 있으려면 철저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함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ong과 Page (1989)는 호주의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를 개발하였다. Merz의 영어판 척도의 각 문항을 특히 어의적 의미, 적절성, 및 잠재적 애매성을 고려해서 평가, 수정하였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여 총 60개 문항을 척도에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최종 단계에서 그 중 가장 적절한 14 문항 만을 선택하였다 (Hong & Page, 1989 참고). 이 척도는 신뢰도 측면에서 검사-재검

사 (test-retest)에서 .89, 알파 (alpha)에서 .77, 및 오메가 (omega)에서 .82로 나타났다. 이 14-문항 척도는 총 변량의 반 이상 (52.7 %)을 설명하는 명확한 4개의 요인 구조를 산출하였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후 연구 (Hong, 1992) 에서도 거의 동일한 요인들이 산출되었다. Hong (1992)은 이 척도에 대해서 .81(alpha)과 .76(split-half)의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얻었다.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가 인구 80,000인 작은 도시의 대학생 표집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큰 전집에서 이 척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Hong (in press)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포함한 더 큰 전집 (N=3085) 에서 이 척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문항이 일관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한 11개 문항으로 최종적인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77(alpha), .73(split-half), 및 .77(theta)로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이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척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방 법

피험자

5개 대학교에서 총 1159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여자가 664명, 남자가 495명이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경우는 43 %, 미필과 면제가 57 %였다. 전체 피험자들의 나이는 17세에서 31세 사이였고, 평균이 21.23세였다. 그들의 전공계열은 자연/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이 각각 40 % 정도였고, 나머지 20 %가 예체능 계열이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측정도구로는 11문항으로 구성된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맨처음 번역-역번역 (translation- backtranslation) 절차로 시작하였다. 즉 영어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영역한 후 원래의 문장과 영역한 문장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척도를 52명의 호주 한국 교민들에게 실시해 본 결과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기본으로 개념적 일치(conceptual equivalence) 절차를 통해 새로이 척도를 구성하였다. 즉 단순한 번역보다는 의미적으로 맞도록 구성하기 위해 10명의 전문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영어로 된 각 문항의 의미를 살려서 한국어로 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여기 참여한 전문 심리학자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및 심리학과 대학원생들로서, 혼자 혹은 2-3명의 집단으로 문항작성에 참여하였고, 작성된 문항들의 의미가 원문의 내용에 적절한지를 반복해서 수정,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문항을 가지고 52명의 피험자들에게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이 예비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문항들을 재검토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해서 또다른 8명의 전문심리학자들이 의미가 원문의 내용에 적절한지를 반복해서 수정,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한국어판 11-문항 척도를 영문판 척도와 함께 부록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반발심과 다른 성격구성개념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성-분노 (trait-anger)와 통제의 소재 (locus of control)를 측정하는 척도를 심리적 반발심 척도와 함께 실시하였다. 특성-분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Hong과 Withers (1982)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통제의 소재를 측정하는데는 Lumpkin (198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들 또한 심리적 반발심 척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번역되었다.

모든 척도에 대해,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1점에 해당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에 해당하는 '아주 그렇다' 까지 평정이 가능했고, '그렇기도 하고 안그렇기도 하다' 에 대해서는 3점을 할당하였다. 특정-분노 척도의 문항 1, 7 및 통제의 소재 척도의 문항 2, 4, 6은 다른 문항들이 측정하는 내용과 반대 방향의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점수는 결과분석시에 역으로 환산해서 사용하였다.

측정을 위해서, 연구방법론에 관한 훈련을 받은 심리학과 학생들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데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먼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자신의 나이, 성별, 전공계열, 출생순위, 및 남자의 경우 군복무 여부 등을 기재하였다. 총 24문항의 질문지에 답을 하는데는 대략 10-15분 정도 소요됐으며 시간제한은 주지 않았다.

결 과

반발심 척도의 요인구조

심리적 반발심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토하기 위해서, varimax 회전방식을 채택한 주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적정 요인 수의 결정은 Cattel의 scree 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 표집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는데, 유의미한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의 기준은 .50 이었고, .40 에서 .49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경우는 그 값을 ( ) 안에 표시하였다. 한국 피험자들에서 얻어진 요인구조를 호주 피험자들에서 얻은 요인구조 (Hong, in press)와 비교해 보기 위해, 전체 표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한국 자료와 호주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주의 피험자와 한국의 피험자 모두에서 유사한 4-요인 구조가 산출되었다. 개개 문항의 공통변량 (communality, h^2)도 유사할 뿐 아니라, 전체변량 중 4-요인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변량의 양도 전자의 경우 61.2%, 후자의 경우 58.5 %로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부하(loading)된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적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경우 모두에서 문항 1, 2 ,3이 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문항 5와 7이 역시 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문항 4와 8, 문항 9와 10이 각각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단지 문항 6과 문항 11 만이 두 경우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각 요인들에 대해서 Hong (in press)은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였다. 먼저 문항 1, 2, 3으로 구성된 요인 (호주 자료에서 요인 I; 한국 자료에서 요인 II)은 '동조에 대한 반발심 (Reactance to Compliance)' 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데 대해서 일어나는 반발심을 말한다. 한국 자료에서는, 호주 자료와 달리, 문항 11이 이 요인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량 (.57)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표현된 문항 11은 '누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그와 반대로 하고 싶어진다.' 라는 내용인데, 이는 복종하는데 대한 반발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 문항이 이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문항 5, 7, 6으로 구성된 요인 (호주 자료에서 요인 II; 한국 자료에서 요인 IV, 단 문항 6은 제외)은 '의존하게 되는 데 대한 반발심 (Reactance Towards Being Dependent)' 이라 명명되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한국 자료에서는 문항 6이 이 요인에 포함되지 않고, 문항 4, 8과 함께 새로운 요인을 구성하였다. Hong (in press) 에 따르면, 문항 4, 8로 구성된 요인 (호주 자료에서 요인 IV; 한국 자료에서 요인 I)은 '충고나 권고에 대한 반발심 (Reactance Towards

표 1. 한국과 호주의 전체 표집에서 반발심 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의 요인 (N=1159)					호주의 요인 (N=3085)				
문항	I	II	III	IV	h^2	I	II	III	IV	h^2
4	75*				60				84	75
6	69				55		76			63
8	66	(42)			65				67	62
2		75			61	71				53
1		63			53	73				59
11		57			55			61		54
3		50			50	71				62
10			78		64			74		60
9			61		50			73		60
5				82	70		77			63
7				63	60		72			62
Eigenvalue	3.36	1.12	1.02	.94		3.31	1.52	1.00	.90	
% explained	30.6	10.1	9.3	8.5		30.1	13.8	9.0	8.2	
Cum. %	30.6	40.7	50.0	58.5		30.1	43.9	52.9	61.2	

* 소숫점은 생략되었음

Advice and Recommendations)'이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이나 충고를 하는데 대해 갖게 되는 반발심을 말한다. 한국 자료에서 문항 6이 이 요인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량 (.69)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받으면 짜증이 난다.' 라는 문항 6의 내용은 이 요인의 성질과 비교적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항 9, 10, 11로 구성된 요인 (호주 자료에서 요인 III; 한국 자료에서 요인 III, 단 문항 11은 제외)은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저항 (Resisting Influence From Others)' 이라 명명되었다. 즉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시도하는데 대한 반발심이다.

문항 6과 문항 11이 호주 자료와 한국 자료에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영어로 된 척도를 한국어로 바꿀 때 가능한 한 각 문항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번역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호주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요인구조는 호주 자료와 한국 자료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는 전체표집을 남자와 여자를 분할하여 성별에 따른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남자와 여자 표집 각각에서 반발심 척도의 요인구조

	남자의 요인 (N=495)					여자의 요인 (N=664)				
문항	I	II	III	IV	h^2	I	II	III	IV	h^2
4		52			41	77				63
6			50		40	71				53
8	55	(42)		(41)	64	68				63
2	72				59			69		57
1	80				73			54	(48)	58
11	(44)			(43)	54		63			59
3				84	75			70		55
10		71			54		83			69
9		73			57	(43)	51			49
5			72		65				84	72
7			77		67				59	59
Eigenvalue	3.39	1.12	1.07	.91		3.40	1.21	1.01	.95	
% explained	30.8	10.2	9.8	8.3		30.9	11.0	9.2	8.6	
Cum. %	30.8	41.0	50.8	59.1		30.9	41.9	51.1	59.7	

참고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반발심 척도의 평균 점수는 각각 3.18 (SD= .49) 과 3.19 (SD= .48)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 0.39, p>.10). 요인분석 결과, 남자 표집과 여자 표집 모두에서 유사한 4-요인 구조가 산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변량 중 4-요인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변량의 양도 남자의 경우 59.1 %, 여자의 경우 59.7 %로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을 살펴 볼 때, 여자 표집에서 얻어진 결과는 전체 표집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구조를 나타냈다. 단지 문항 11이 문항 9, 10으로 구성된 요인에 더 높은 부하량을 나타냈다는 것이 다르다. 남자 표집에서 얻어진 결과는 여자 표집에서 얻어진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요인 구조가 얻어졌다. 참고적으로 호주 자료에서는 남자와 여자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 자료에서 여자와 남자의 요인구조가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남자에게 더 허용적인 사회이다.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심리적 반발심같은 특성에 대한 허용범위가 남자와 여자에서 달라서, 특히 여자의 반발심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

표 3. 전체표집에서 반발심 척도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I/T r), 및 α

문항	평균	표준편차	I/T r	α
4	2.95	.93	.44	.74
6	3.70	.96	.42	.75
8	2.48	.84	.51	.74
2	2.67	.85	.42	.75
1	3.07	.84	.34	.76
11	3.01	.90	.54	.73
3	3.45	.85	.31	.76
10	2.99	1.01	.36	.76
9	3.06	.83	.43	.75
5	3.74	.89	.33	.76
7	3.92	.77	.48	.74
전 체				.77

우가 많다. 이 생각은 심리적 반발심의 범위가 남자에서 더 높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반발심 점수의 범위가 1.73에서 5.00까지 였던 반면, 여자의 경우 1.27에서 4.73까지의 범위를 가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자와 여자 간에 심리적 반발심 척도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평균 점수와 신뢰도(reablility)

반발심 척도의 각 문항을 제외시켰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내적 일치성 신뢰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s α)와 문항-전체 상관 (item-total correlation; I/T r)을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2.48에서 3.92의 범위에 속했고, 표준편차는 .77에서 1.01으로 비교적 낮아서 반응의 변산이 비교적 평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항 7 '누가 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화가 난다. (I become angry when my freedom of choice is restricted.)'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호주 자료 (M=4.0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 결과는 호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선택의 자유라는 덕목이 매우 가치있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문항 8 '충고나 권고를 받으면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하고 싶다. (Advice and recommendations usually induce

me to do just the opposite.)'의 평균점수 (M=2.48) 가 가장 낮았다. 이 역시 호주 자료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것이 어느 사회건 바람직한 요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전체 상관 자료는, Nunnally (1967)가 제시한 .20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모든 항목들이 척도를 충분히 잘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개 항목이 척도로 부터 제외되었을 때 α 값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73 - .76 수준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7로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내적 일치도가 모두 .77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발심 척도와 요인들 간 상관

전체 표집에서, 4개의 요인들 간의 상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에 기초한 점수 (factor based score)를 기준으로 계산한 4개의 요인은 11-항목 척도와 .65에서 .80까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4개의 요인들 간의 상관은 .31에서 .43까지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산출하였다 ($p<.0001$). 이 결과는 심리적 반발심 척도가 개개 요인별 뿐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척도로서 타당함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성격 구성개념과의 상관

여러 연구들에서, 심리적 반발심과 다른 성격 구성개념 간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Hong (in press)은 자기-존중감 (self-esteem) 척도 (Richardson & Benbow, 1990), 생의 만족도 (life-satisfaction) 척도 (Diener, Emmons, Larson, & Griffin, 1985), 종교심 (religiosity) 척도 (Mol, 1970), 특성-분노 (trait-anger) 척도 (Hong & Withers, 1982), 통제의 소재 (locus of control) 척도 (Lumpkin, 1985), 및 우울증 (depression) 척도 (Keltingangas-Jarvinen & Rimon, 1987)에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심리적 반발심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특성-분노 와 우울증은 심리적 반발심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의 만족도와 종교심은 낮은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의 소재와 자기-존중감은 반발심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연구에서, 특성분노 및 우울증과 유사한 개념인 공격성 변인과 반발심 간에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 (Dowd & Wallbrown, 1993). 자기-존중감, 행복감, 생의 만족감, 및 종교심 등과 반발심 간에는 부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wd & Wallbrown,

표 4. 전체 표집에서 반발심 척도와 요인들 간의 α와 상관*

척도/요인	α	A	B	C	D	E
A. 11-문항 척도	.77	1.00	.77	.80	.66	.65
B. 요인 I	.63		1.00	.43	.39	.35
C. 요인 II	.58			1.00	.35	.39
D. 요인 III	.44				1.00	.31
E. 요인 IV	.49					1.00

* 모든 상관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1993; Joubert, 1990). 내적 통제 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와 심리적 반발심 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는 반면에 (Brehm, 1981), 상관이 없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 (Hong, in press).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반발심 척도와 다른 성격구성개념 간의 관련성 을 보기 위해서, 다른 성격 구성개념으로 '특성-분노' 와 '통제의 소재' 변인을 선택하였다. 먼저 반발심 척도와 특성-분노 척도 간에 상관을 구해 본 결과, 높은 정적 상관 (r= .40)이 얻어졌다. 참고적으로 호주 자료에서 역시 r= .38의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 전체 표집을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두 경우 모두에서 r= .40으로 일치하였다. 즉 특성-분노 점수가 높은 사람은 심리적 반발심 경향성이 높았다. 이 결과는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 역시 심리적 반발심 특성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의 소재와 심리적 반발심 간에는 높진 않지만 유의미한 역상관 (r= -.10)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호주 자료에서는 r= .02로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표집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남자에서는 r= -.05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여자에서만 r= -.11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여자의 경우 내적 통제소재를 가질수록 심리적 반발심이 높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을때 심리적 반발심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남자에게 더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여자가 반발심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적 통제소재를 일종의 '자신감'으로 본다면, 자신감이 더 많은 일부 여자들만이 반발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심리적 반발심 점수의 범위가 남자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예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더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 전체 표집, 남자, 혹은 여자 표집에서 반발심 척도와 다른 성격 구성개념 간의 상관

집단/척도	특성분노	통제소재
전체 피험자	.40 ***	-.10 *
남자	.40 ***	-.05
여자	.40 ***	-.11 *

* p<.01, *** p<.0001

참고적으로 특성-분노 척도와 통제의 소재 척도의 평균점수 간에 남녀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경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성-분노 척도에서 남녀 각각의 평균점수는 2.87 (SD= .52) 과 2.95 (SD= .57) 로서 여자가 전반적으로 높은 특성-분노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 2.63, p<.01). 반면에 통제의 소재 척도에서는 3.07 (SD= .34) 과 2.98 (SD= .30) 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내적인 통제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4.51, p<.0001).

심리적 반발심이 위에서 언급한 성격 구성개념인 특성-분노와 통제의 소재, 그리고 나이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성-분노, 통제의 소재, 및 나이가 심리적 반발심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고 (F(3,1155)= 73.92, MSE= .19, p<.0001), 심리적 반발심 변량 중 이 세개의 독립변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16.11 %였다. 각각의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는 특

성-분노의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t= 14.38, p<.0001), 나머지 통제의 소재와 나이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t= 1.45, p>.10; t= 0.004, p>.10). 참고적으로 호주자료에서도 역시 특성-분노 점수가 심리적 반발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호주자료에서는 나이 또한 심리적 반발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심리적 반발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실험에 참여한 표집의 나이 분포가 두 경우에서 달랐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호주자료의 경우는 18세에서 45세 까지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17세에서 31세까지 비교적 좁은 범위의 연령층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나이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측정하게 되면 호주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반발심에 대한 나이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로 번역한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가 심리적 반발심이라는 성격 구성개념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라는 것을 제안한다. 전체 표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호주의 자료에서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명백한 4-요인 구조가 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변량 중 4-요인 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 변량의 양도 58.5 %로 호주자료의 61.2 %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Cronbach alpha로 측정한 신뢰도 또한 α= .77로서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단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구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을때, 호주자료에서는 남녀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성별에 따라 요인구조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호주사회와 남녀 간의 성역할 차이가 좀더 강하게 존재하는 우리나라 간의 문화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성격 구성개념의 하나로 제시된 심리적 반발심이 다른 성격 구성개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특성-분노'와 '통제의 소재' 변인을 선택하여 반발심과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반발심 척도는 특성-분노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 (r= .40)이 있었고, 통제의 소재와는 높진 않지만 유의미한 역상관 (r= -.10)이 나타났다. 통제의 소재와 심리적 반발심 간의 역상관은 특히 여자에서 두드러졌다. 이 결과 역시 여러 면에서 남자에게 더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가 반발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적 통제 소재를 일종의 자신감으로 본다면, 자신감이 더 많은 여자들만이 반발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더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 또한 심리적 반발심 특성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연구목적을 위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들어 다양한 상황들에서 심리적 반발심이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뤘던 특성-분노와 통제의 소재 변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 구성개념들과 심리적 반발심과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된 것과 같은 문화적인 차이와 심리적 반발심과의 관계 등이 추후 연구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심리적 반발심이라는 개념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연구목적을 위해 이 심리적 반발심 척도가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Brehm, J.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Academic Press.

Brehm, S.S., & Brehm, J.W. (1981). *Psychological reactance: a theory of freedom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Diener, E., Emmons, R.A., Larson, R.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Dowd, E.T., Milne, C.R., & Wise, S.L. (1991). The therapeutic reactance scale: a measure of psychological reacta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541-545.

Dowd, E.T., & Wallbrown, F. (1993). Motivational components of client reacta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533-537.

Hong, S-M. (in press). Refinement of the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Hong, S-M., & Ostini, R. (1989). Further evaluation of Merz's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s, 64,* 707-710.

Hong, S-M., & Page, S. (1989). A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Psychological Reports, 64,* 1323-1326.

Hong, S-M., & Withers, C.M. (1982). Trait anger, locus of control, religiosity, and authoritarianism as related to trait anger. *Psychological Reports, 51,* 941-942.

Jahn.D,L. & Lichstein, K.L. (1980). The resistive client: a negleced phenomenon in behavior therapy. *Behavior Modification, 4,* 303-320

Joubert, C.E. (1990).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Psychological reactance and other personality variables. *Psychological Reports, 66,* 1147-1151.

Keltingangas-Jarvinen, L., & Rimon, R. (1987). Rimon's brief depression scale: a rapid measure for screening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60,* 111-119.

Lumpkin, J.R. (1985). Validity of a brief locus of control scale for survey research. *Psychological Reports, 57,* 655-659.

Merz, J. (1983). Fragebogen zur Messung der Psychologichen reaktanz. [A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reactance]. *Diagnostica, 29,* 75-82. [From Psychological Abstracts, 1983, 70, No.9353]

Mol, H. (1970). Religion and sex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22,* 105-114.

Nunnally,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McGraw-Hill.

Richardson, T.M., & Benbow, C.P. (199)). Long-term effects of acceleration on the social-emotional adjustment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464-470.

Rohrbaugh, M., Tennen, H., Press, S., & White, L. (1981). Compliance, defiance, and therapeutic paradox. *Amer[illegible]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454-467.

Tucker, R.K., & Byers, P.Y. (1987). Factorial validity of Merz's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s, 61,* 811-815.

부 록

1. 지시문

다음에 열거한 문항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아래의 5가지 응답중에서 선택하여 그 번호를 괄호안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기도 하고 안그렇기도 하다.
(4)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2. 심리적 반발심 척도

( ) 1. 규칙을 대하면 저항하고 싶어진다.
( ) 2.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기분이 좋다.
( ) 3. 어떤 일을 못하게 하면 "그 일을 꼭 하고 싶었는데"하는 생각이 든다.
( ) 4.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으면 간섭받는 것같이 생각된다.
( ) 5. 내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좌절감을 느낀다.
( ) 6.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짜증이 난다.
( ) 7. 누가 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화가 난다.
( ) 8. 충고나 권고를 받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싶다.
( ) 9. 누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이에 저항한다.
( ) 10. 다른 사람을 본받으란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 ) 11. 누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그 반대로 하고 싶어진다.

3. 특성-분노 척도

( ) 1. 내 친구들과 비교해 볼때 나는 화를 덜 내는 편이다.
( ) 2. 느리고 조심스러운 사람을 보면 짜증스럽다.
( ) 3.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 ) 4. 특별한 이유없이 자주 화가 난다.
( ) 5. 내 약점이나 실수 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난다.
( ) 6. 내가 하려던 일을 누군가가 방해하면 몹시 화가 치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
( ) 7.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으며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

4. 통제의 소재 척도

( ) 1.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거의 확신한다.
( ) 2.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한 일들은 어느 정도 운이 나빠서 일어난다.
( ) 3. 어떤 일의 성공여부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을뿐, 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 4.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로 적시적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 ) 5.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행동의 결과이다.
( ) 6.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나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5. 영문판 심리적 반발심 척도

( ) 1. Regulations trigger a sense of resistance in me.
( ) 2. I find contradicting others stimulating.
( ) 3. When something is prohibited, I usually think "that's exactly what I am going to do".
( ) 4. I consider advice from others to be an intrusion.
( ) 5. I become frustrated when I am unable to make free and independent decisions.
( ) 6. It irritates me when someone points out things which are obvious to me.
( ) 7. I become angry when my freedom of choice is restricted.
( ) 8. Advice and recommendations usually induce me to do just the opposite.
( ) 9. I resist the attempts of others to influence me.
( ) 10. It makes me angry when another person is held up as a model for me to follow.
( ) 11. When someone forces me to do something, I feel like doing the oppsite.

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94. Vol. 13. No. 1, 153-166

Validation of Hong's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and its relationship with some personality construct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Sung-Mook Hong　　Sun-Joo Kim, Mahn-Young Le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ranslate the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into the Korean language and to validate the translated scale with a sample of 1159 Korean university students.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ith the total sample yielded a four-factor structure which was almost congruent with those of various Astralian samples. Other psychometric properties such as alpha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ies with other personality constructs were also found to be very satisfactory for the translated scale. These results were highly compatible to those fo earlier Australian studies, except gender differnces in the factor structure, due to cultural differences in terms of sex-role expectation. In conclusion, the findings clearly indicate that the translated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is highly recommendated for use in research.